‘영암멜론, 이제는 글로벌이다’…수출 본격 시동

선적식 갖고 총 4회 걸쳐 가을멜론 28톤 홍콩 수출 계획

“농가 및 수출업체와 협력관계 강화·수출 기반 구축”

영암군은 지난 5일 영암낭주농협 농산물유통센터에서 우승희 영암군수, 문수전 농협중앙회영암군지부장, 이재면 영암낭주농협조합장, 케이멜론공선출하회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암멜론’ 홍콩 수출 선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2019년 대만, 홍콩 수출을 시작으로 꾸준히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영암멜론은 이번 7t을 포함하여 앞으로 11월 20일까지 총 4회에 걸쳐 28t을 수출할 계획이다.

영암멜론은 낭주농협 케이멜론공선출하회를 중심으로 수출을 목적으로 재배기술 컨설팅을 통한 품질의 규격화와 검역 요건 준수 등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해외 소비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어 수출 유망품목으로 자리잡고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영암 우수 농산물의 지속적인 수출을 위하여 농가 및 수출업체와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수출 기반을 구축해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신안군, 차세대 복합 신재생 에너지 모델 및 단지개발 협약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 중심지인 신안군은 지난 11월 4일 서울 롯데 시그니엘 호텔에서 현대글로비스, LS일렉트릭, NH인터내셔널, 목포MBC와 함께 차세대 복합 신재생에너지 모델 및 단지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박우량 신안군수를 비롯해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현대글로비스 김정훈 사장, LS일렉트릭 김종우 사장, NH인터내셔널 김호석 대표 목포MBC 이순용 사장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협약기관은 도서지역의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해 내연기관을 태양광, 풍력, 사용후베터리, 그린수소를 결합한 복합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며, 도서지역의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미래 신기술인 염분차발전을 통한 해수담수화 사업의 실증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계통연계 송전망 이용율 저조에 따른 효율성 제고를 위해 100MW급 대규모 복합 신재생에너지 단지개발 개발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정부의 Net Zero 2050 정책에 동참하고 신안의 무한자원인 바람과 햇빛을 이용한 복합신재생에너지발전으로 탄소중립을 이행하여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신안군 건설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신안=이덕주 기자

무안군, 교통약자 전용 바우처 택시 추가 지정 운행

비휠체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만족도 제고·지역 안배

무안군이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위해 지난 8월 16부터 운행하던 교통약자 전용 바우처 택시를 추가 지정해 운행한다.

바우처 택시는 평상시에 일반인을 상대로 영업하다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비휠체어 장애인과 임산부 등의 배차 요청이 있을 경우 이들을 태우는 택시를 말한다.

군은 바우처 택시 5대를 운영하고 있지만, 비휠체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만족도 제고와 지역적 안배를 위해 3대 더 추가 지정했다.

바우처 택시는 하루 2회, 월 30회, 1회 최대 3만원으로 이용 가능하며, 운영지역은 무안군 관내, 운영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최대 1천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김산 군수는 “바우처 택시 추가 도입으로 교통약자들의 생활권 확대와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안정적 매출 증대에 기여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호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살필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바우처 택시는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061-287-8340~1)에 교통약자로 등록한 후 배차 요청하면 이용 가능하다.

무안=이기성 기자

목포시, 평화광장 상가거리 관광객맞이 감성 분위기 연출

가랜드 전구 300m 설치

목포시가 겨울 관광철을 맞아 평화광장 상가 거리를 감성적인 분위기로 연출했다.

시는 지난 4일 평화광장 상가 앞 가로등 150m 구간과 바닷가 인도 가로등 150m 구간에 가랜드 전구를 1차로 설치했고, 앞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설치를 확대할 방침이다.

가랜드 전구 설치는 지난달 개최한 목포항구축제의 건맥구이터존에서 감성캠핑장을 연출하며 관람객의 큰 호응을 얻은 가랜드 LED 전구를 평화광장 야간조명으로 임시 활용하자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

목포의 대표적인 야간 관광 콘텐츠인 ‘목포해상W쇼’, ‘항구 버스킹’, ‘야간 시티투어’ 등과 연계한 조명이 설치됨에 따라 평화광장의 겨울밤은 낭만적인 분위기가 더욱 고조되게 됐다. 이에 따라 평화광장 상권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시는 겨울철 관광 활성화에 힘쓰고 있는데 목포해상W쇼는 오는 26일 올해 최종 공연을 선보이고, 12월 24일과 31일 특별 공연을 개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체류형 관광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상케이블카, 상설 문화예술공연 등 야간 관광컨텐츠를 활용하고 더욱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목포=기동취재본부

영광군, 초·중학교 대상 절주 및 금주 예방교육

오는 25일까지 636명 대상 실시

영광군은 건전한 절주 및 금주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2일부터 25일까지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초 · 중학교(5개교) 636명을 대상으로 금주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1월은 음주 폐해 예방의 달로 과도한 음주로 인한 사건 사고를 예방하고, 음주 폐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올바른 음주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청소년의 주된 음주 경로는 성인이 준 술을 마시는 것(34.2%), 집에 있는 술을 마시는 것(33.6%), 음주의 시작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생애주기별 건강생활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절주 및 금주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영광=서희권 기자

함평천지전통시장, ‘내일로 비전 선포식’ 성료

“행정에서도 전통시장 발전 위해 지원 아끼지 않을 것”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도약을 위한 함평천지전통시장 ‘내일로 비전 선포식‘이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함평군은 7일 “‘내일로 비전 선포식‘이 이상익 군수, 윤앵랑 군의회 의장, 상인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전 함평천지전통시장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특성화 첫걸음시장 기반 조성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내일로 비전 선포식’은 함평천지전통시장의 문화관광형 시장으로의 도약 발판을 마련하고, 고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우수상인 시상식 ▲문화단체 협약식 ▲비전 선포 ▲경품증정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돼 시장 상인과 고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함평천지 전통시장이 명품시장으로 탈바꿈하길 기대한다”며 “행정에서도 전통시장의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평천지전통시장, 첫걸음 기반조성’ 사업은 상인회 주도 아래 함평천지 전통시장을 문화와 관광을 접목한 특성화 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함평=김광춘 기자